

국제동향

특허권 침해소송 판정시한 연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

美國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韓國產반도체 D램에 대한 특허권침해 소송의 판정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국내업체의 요청을 수용, 국내업체는 충분한 반박자료를 제

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됐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ITC는 최근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구한 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판정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現大電子 金星 일렉트론측의 요청을 수용, 확정판정시한을 오는 12월 20일에서 94년 6월20일로 6개월 연기했다.

일본 미국의 시장개방교섭 거부

시장점유율 목표치설정 관련

일본 통산성은 美정부가 검토중인 일본내 외국제품 시장 점유율 목표치설정과 관련된 시장개방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본통산성은 이들 고위 관계자를 미국에 파견, 美측

에 전달키로 했다. 통산성은 시장점유율의 목표설정이 ▲ 관리무역색채가 강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 위반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고 ▲ 자국내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설명할 방침

이다. 이와관련 USTR(美무역대표부)의 캔터대표는 美日반도체협정의 방식을 『반도체이외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협상 새로운 돌파구

新 프랑스 정부의 재협상 제안으로

중도 우파 연합의 新프랑스정부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세계무역자유화 정책과 관련된 여러 협정에 「방법을 재조정」하는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협상을 둘러싼 세계무역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알랑 쥐페 프랑스외무장관은 프랑스는 EC(유럽공동

체)와 미국간에 체결된 농산물협정에 재조정을 모색하겠으며 GATT체제하에서 진행중인 세계무역협상의 진전을 더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고 「재협상의 형태」를 취함은 물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할 용의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쥐페장관은 유럽 제1라디오와의 대담에서 『프랑스는 과거의 봉쇄정책에서 행동하

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에따라 GATT와 관련된 여러 협상에 대해 「再조정의 형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던 EC외무장관들과의 회담결과 나온 것으로 EC외무장관들은 프랑스의 새 정권에 입장을 재정비할 시간을 주기로 합의했었다.<♣>